

새로 나온 책

4차산업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

이익 창출의 시대에서 가치 창출의 시대로,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세상이 바뀌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시를 통해 개천에서 난 용이 되길 꿈꿨다면, 밀레니얼 세대들은 스타 유튜브가 돼 흡수자를 탈출하길 바란다. 게임의 장이 바뀌고 새로운 승자가 만들어진다. 책은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살아갈 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닥쳐올 것인지, 여기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디지털 시대 사용설명서다.



디지털 혁명 사용설명서
오강선 지음/클라우드 나인

디지털 혁명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활동을 포함해 정치·사회적 행동 유인이 이익창출에서 가치창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이익이 더 중요했다. 소유할수록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먼저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쳤다. 반면, 디지털 시대는 통신문을 통해 인간과 모든 도구를 잇는다. 플랫폼이라는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참여자들의 가치창출이 더 중요하게 됐다. 가치창출은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진다. 사람들의 호감을 사면 이용자가 폭발

적으로 증가하고, 반감을 사면 기하급수적인 이탈이 생긴다. 한 방에 훅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시대는 끝났다. 경쟁이 최적화된 한국 사회에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가치를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은 네트워크로 상호작용하며 생태계를 만든다. 이러한 생태계는 기업이 아닌 이용자가 주도한다. 어떻게 이용자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생태계를 만들고 확장할 것인가. 거대한 디지털 혁명의 파도 앞에서 변화의 방향을 읽고 싶은 이들을 위한 안내서. 336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ik1@

기획자의 책 생각

이정훈, 김태한 지음/책과강연



“기획되지 않으면, 기억되지 못한다.”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획자의 시각이다. 기획이란 연결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저자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간 관계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기획이라고 말한다. 지난 15년간 500여 개 기업에서 위기관리 컨설팅을 맡아온 저자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기획의 원리를 ‘책 쓰기’에 적용, 책이 비즈니스의 강력한 도구로 구축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무엇을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누가 읽을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기획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기획이 요구되는 시대의 변화를 진단하고 실체가 있는 기획에 대해 이야기한다. 2장에서는 책 쓰기를 모티브로 한 기획의 구체적인 사례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3장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가는 새로운 형태의 전략기획과 1인 출판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한다. 4장에서는 텍스트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는 플랫폼을 다루고 각각의 활용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책을 기획하는 과정을 저자의 시선으로 훑다 보면 눈 앞에 펼쳐진 기획의 실체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216쪽. 1만3800원.

불멸의 신성가족

김두식 지음/창비



‘왜 법은 모두에게 불신받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해 대한민국의 법조계를 심층 탐구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브로커, 법원 공무원, 경찰 등 법원 안팎의 인물들을 인터뷰했다. 이들의 입을 통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법조계 엘리트, 이른바 ‘신성가족’의 적나라한 모습을 낱낱이 까발린다. 법조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국사회가 가진 사법 불신의 뿌리를 파헤친다. 380쪽. 1만7000원.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노루귀

인팡 녹이며 환하게 피어나는 꽃아, 그렇게 열리는 찰나의 우주

/고흥곤 작

졸업·입학 시즌 프로모션 봇물

“호텔 뷔페, 풍성한 혜택으로 즐기자”

호텔업계가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풍성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들이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사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호텔들은 졸업증, 입학증을 제시하는 고객에 한해 풍성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4인 고객을 기준으로 1인의 식사권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에 할인을 더한 혜택으로 고객을 사로잡고 있다.

이비스 엠베서더 명동은 오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졸업·입학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졸업생·입학생을 동반한 4인 고객이 ‘라 따블(La Table)’ 레스토랑을 방문하면 1인에게 무료로 식사권을 제공한다. 또 다른 할인 혜택도 마련됐다. 19층에 위치한 샴페인바 ‘르 바(Le Bar)’에서는 오픈 기념으로 오는 28일까지 디너 뷔페를 20% 할인 해준다. 디너 뷔페와 샴페인바를 모두 이용하는 고객은 20%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그랜드 힐튼 서울도 호텔의 시그니처 레스토랑인 ‘뷔페 레스토랑’에 4인 고객이 방문할 시, 1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 이 레스토랑에는 한식, 중식, 양식, 디저트 등 100여가지 메뉴를 만나볼 수 있으며, 계절 및 테마에 맞는 프로모션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2월 한 달 동안은 ‘세계 미식 기행-태국’ 프로모션이 진행됐다. 졸업·입학 프로모션은 오는 3월 8일까지 운영된다.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레지던스(이하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은 오는 3월 10일까지 ‘셀레브레이트 뉴비기닝(Celebrate New Beginning)’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호텔 20층에 위치한 뷔페 레스토랑 ‘푸드익스체인지’에서 진행되며, 졸업생 및 입학생을 동반한 3인 이상의 가족이 방문하면 1인 무료 식사 혜택을 제공한다. 또, 최소 3인 이상 방문 시에도 최대 10인에 한해 30%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내달 8일까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대학원 졸업·입학생을 대상으로 호텔 내 레스토랑인 ‘타볼로 24’와 ‘BLT 스테이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타볼로 24’에서는 졸업생 및 입학생을 동반한 4인 이상 고객이 저녁 뷔페를 이용할 시, 1인에 한해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BLT 스테이크’에서는 같은 조건으로 방문하는 고객에게 전체 식사 금액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웹캠 드링크도 내추럴 와인 또는 스파클링 와인을 1잔씩 제공한다.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뷔페 레스토랑 ‘그랜드 키친’과 ‘브래서리’에서는 오는 28일까지 졸업생을 동반한 4인 이상 고객에게 호텔 소믈리에가 준비한 하우스 와인 1병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양 뷔페 레스토랑에서는 오



① 이비스 엠베서더 명동 ‘라 따블’ 레스토랑은 내달 3일까지 졸업·입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② 포포인츠 바이 웨라튼 서울 남산의 레스토랑 ‘더 이터리’ 전경.
③ 그랜드 힐튼 서울의 ‘뷔페 레스토랑’에서 오는 3월 8일까지 졸업·입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비스 엠베서더 명동·신세계조선호텔·그랜드 힐튼 서울

졸업생·입학생 동반하면 혜택 1인 무료 식사·50% 할인·1+1 등 뷔페 레스토랑 알차게 즐길 수 있어

는 3월 31일까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선결제 시, 주중 점심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최대 4월까지 졸업·입학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3월 29일까지 프로모션을 이용할 수 있지만, 4인 이상 단체 고객에 한해 4월 30일까지 프로모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모션은 호텔 뷔페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진행된다. 졸업·입학생을 포함한 방문객 모두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4인 이상의 단체 고객에겐 스파클링 와인(또는 레드와인)이 추가로 제공된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관계자는 “테라스”는 셀러드 및 에피타이저 스테이션, 핫 디쉬 스테이션, 한식 스테이션, 디저트 스

테이션 등 7개의 섹션에서 한식부터 중식, 일식, 양식을 총망라하는 인터내셔널 뷔페 레스토랑이다”며 “테라스 이용객은 전면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부터 화려한 야경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도심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포인츠 바이 웨라튼 서울 남산에서는 입학 시즌인 3월 한 달간 ‘더 이터리’ 레스토랑에서 소프트드링크주문 시 1잔을 추가로 제공하는 1+1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호텔 관계자는 “‘더 이터리’ 레스토랑은 호텔 19층에 위치해 서울의 전망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20~30대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관련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의 뷔페 레스토랑 ‘까밀리아’에서는 내달 8일까지 ‘해피 그라두에이션(HAPPY GRADUATION)’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성인 3인 이상 이용 시에 졸업·입학생 1인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측은 “‘까밀리아’에서는 통유리 밖으로 보이는 해운대의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다”면서 “계절별 테마에 맞춰 선보이는 다양한 프로모션 요리, 라이브 키친에서 신선한 재료로 즉석에서 조리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